

대북 심리전 재개에 관하여

- 주 제: 대북심리전에 관한 전문가 토론
- 일 시: 2010년 6월 14일(월) 12:00-13:00
- 참석자: 안찬일(서강대), 김민석(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정영태(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한 정부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은 심리전 재개를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현재 심리전 관련 시설물에 기습 침투하여 관련 시설을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중대포고’라는 형식을 빌어 표명해 옴으로써 대남 위협의 강도를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심리전의 필요성, 효과성, 중요성 그리고 향후 심리전 전개방향에 대하여 몇몇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심리전 재개의 필요성은?

○ 김민석(중앙일보)

북한이 잠수정을 가지고 침투해서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수중 무력도발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전쟁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 평화적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에 대해 응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남한 당국은 군사적인 대응과 비군사적인 대응 모두를 검토한 후, 우선적으로 비군사적 대응인 심리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비군사적 대응에 있어서 외교적 대응, 경제적 대응도 가능한데,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 정부에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무력적인 응징도 예상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군사적인 대응보다 비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부처 장관들이 직접 천명하였기 때문에 심리전 활동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한에 대해 더 큰 위협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이 천명한 의사를 접게 된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 심리전이 북한 군대 혹은 인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 안찬일(서강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비판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모순, 잘못된 점을 외부세계로부터 알게 되면서 자신들의 내부 세계가 약해지는 것에 크나 큰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북한 정부 당국은 정신적인 공세에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인민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대북 심리전이 재개 된다면 북한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워 할 것이지만 북한 인민이나 군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 심리전 차원의 대북방송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에 대한 생각은?

○ 안찬일(서강대)

북한사회가 통제된 사회이긴 하지만 일부 중상층에서는 라디오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있으며, 이들은 외부방송을 은밀히 청취하고 있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수만 명의 군인들 중 대다수는 출신 성분이 중간계층 이상에 포함된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심리전 방송이 직접적으로 전달된다면 이들이 직접 듣는 것은 물론 후방지역 주민과 친인척 가족들에게까지 선전내용을 전달·확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심리전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심리전에 대한 남한 군 당국의 입장은?

○ 김민석(중앙일보)

남한군 당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심리전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북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용천폭발사건’의 경우 휴전선의 심리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군 당국은 전방에서 심리전을 펴는 것에 대해 전방에 있는 부대뿐만 아니라, 북한 일반주민들에게도 전략적 효과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남-북 회담 때마다 ‘심리전 수단을 제거해 달라’는 의제를 들고 나왔었다.

2006년에 남-북간 서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남한이 요청한 국제 상선 통신망 활용시스템을 서해에 구축하는 대신 남한 정부는 북한의 요청대로 심리전 수단을 제거하였다. 오랜 시간 북한이 끈질기게 요청해온 일이었기에 남한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제까지 중지되어 온 대북심리전 수단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서 북한의 현재 위협대응이 그냥 으름장만은 아닐 수 있다. 심리전 수단 재개 역제가 그들의 1차적 목표로 상정된 것처럼 보인다.

□ 가장 효과적인 대북심리전 방법은?

○ 안찬일(서강대)

심리전 수단에는 방송이나 ‘빠라’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모두가 지니고 있다. ‘빠라’보다는 방송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빠라’의 경우 일단 뿌리고 나면, 북한 당국에서 사람을 동원해 보이지 않게 수거해 버릴 수 있다. 반면, 방송의 경우 반복되는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세뇌현상도 일으키고 정신적 와해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방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편지를 통해 친인척들에게 심리전 방송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일종의 ‘송신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김민석(중앙일보)

심리전을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은 동영상을 포함한 전광판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정영태(통일연구원)

대북심리전 수단으로서 영상매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보는 기능이 보다 직접적으로 심리전 상대의 인식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매체를 통해서 휴전선 이북의 인민군대에 남한에 대한 자연스러운 동경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상 심리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안찬일(서강대)

휴전선 이북에서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동영상으로 나오는 대북심리전은 한 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지만 전광판에 큰 글자로 심리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향후에는 보다 발달된 대형 동영상매체로 북한 군대의 눈을 자극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 심리전 재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이 심리전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은?

○ 안찬일(서강대)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징명분은 충분하다. 남한정부가 북한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도발을 전개하게 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심리전으로 응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남북대결 상황에서 보복응징이라는 차원의 심리전 재개로 출발하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프로세스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심리전 재개에 대한 비판론을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 김민석(중앙일보)

필사즉생(必死則生)이란 말이 있다. 어차피 북한을 응징하고, 재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 역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막아나가겠다는 일관된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억지전략'이 필요하며,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강행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원칙을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북한 온정주의에 휩싸인 채 안보의식에 취약한 사고를 지니게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계몽운동'을 통해 안보의식 결핍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천명한 내용을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인다면 온정주의나 비겁주의가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며, 국가 위상이나 안보에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심리전 재개 찬반 의견 관련 안보의식의 중요성은?

○ 정영태(통일연구원)

천안함의 경우 국제적 전문 조사단의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부정·왜곡하는 남한의 사회적 그룹들이 존재한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경우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다수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장년층(40-50대)에 비해 청년층이 더 정부의 조사결과에 의심을 품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개인적으로 원인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청년층에게 북한의 실체가 제대로 인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그동안 국가가 북한의 실체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부족했다. 북한을 설명하는데 있어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환상적인’ 대북관에만 치우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는 북한이 여타 ‘보통국가’와 유사하게 인식되어 온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안이한 인식 탓에 우리 젊은이들은 북한의 위협천만한 군사적 기습도발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 군당국의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조사결과 조차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보의식의 해이’가 곧 대북 심리전을 반대하는 원인이라는 유추해석도 가능하다.

□ 향후 심리전 전개 방식은?

○ 안찬일(서강대)

심리전은 상대의 의식구조나 수준을 기초로 해서 공격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휴전선 주변에서 심리방송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북한사람들은 그래도 사상교육이 잘 된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 전달보다는 외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외부세계의 사실들, 국제적인 이슈나 한국사회의 다양한 면모 등에 대해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잘 전달한다면 전방의 북한 인민군들이 전달자로서 역할을 통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석(중앙일보)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심리전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로 남한 당국이 심리전을 펴는 것에 대하여 젊은 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북 심리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 심리전에 대해 그 자체로 해석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을 계몽시키고 외부의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북한의 민주화,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로 북한에 TV방송 공유 제안을 상징적으로 해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젊은 층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젊은 층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현재의 심리전 방법으로는 풍선에 관련 물건이나 문구를 넣어 보내는 것, 확성기 방송, FM라디오, 전광판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전광판은 앞으로 설치하겠지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확성기 방송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FM 방송의 지속정취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라디오, 배터리를 연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km이상 올라가는 고공풍선에 FM중계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FM방송이 200km는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심리전 방송 내용을 젊은 층에게 맞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민·군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심리전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 정영태(통일연구원)

심리전이라는 군사적 용어보다는 대북 한류 전파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로 ‘한류’와 같은 문화의 전파, 문화의 이동 방식을 북한에 확산·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민석(중앙일보)

문화의 전파는 지금 당장 뿐 만이 아니라 통일을 생각해 볼 때 남북한 상호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